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하나님 선민에 대한 심판

(아모스 3장 1 - 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 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민에 대한 심판은 가장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선민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⑥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나팔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울릴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듯이 선지자가 나팔 소리와 같이 예언을 할 때 백성들은 말씀을 두렵고 신중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⑦ “여호와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6절). 재앙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⑧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8절). 부르짖는 사자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무서워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⑨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8절). 아모스는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 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11절).

재앙이 올 때는 반드시 예언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킬 때는 군사력을 약하게 하고 지도자로 하여금 지도력을 상실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벨들의 계단들을 벌하여 그 계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14절).

제사장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목사가 비난의 대상이 될 때 나라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15절).

큰 부자들이 사치하고 열락을 취하고 제 욕심만 차리다면 마침내는 망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확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9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에 대한 확대를 시작합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결상의 방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12절).

그러나 민족과 나라가 망하는 날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안에 숨을 때에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함을 얻게 되니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점진적 심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창 35:10).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1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2절).

이것은 유일하고 독특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히 12:8) 하나님의 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아홉 가지 질문을 하시고 후에 선언을 하시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있기 전에 있습니다.

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3절).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의 근거를 말씀한 것입니다. 같은 멩에를 맨 소는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악행으로 간주하시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②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4절). 사자의 앞에 먹은 것이 없다면 사자가 부르짖을 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멸망시킬 대상이 없다면 위협을 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③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4절).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 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④ “덧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어겠으며”(5절). 새는 덧이 없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참 회개 없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⑤ “잡힌 것이 없는데 덧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5절). 심판의 대상이 발견되면 곧

제18회 군중목사 후보생 수련회 개최

3월18일(화)~20일(목)

군중목사로 임관할 후보생들의 입대전 예비소집 교육을 우리교회 후원으로 18일부터 갖는다.

18일(화)은 우리교회당에서 오전 11시 개최예배후 특강이 있고 19일 부터는 여전도회관에서 진행된다.

비전2020운동의 전위대가 될 군목들에게 군목사역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수련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기도 지원을 바란다.

새 세대 엄마들의 모임

4월 10일(목) ~ 5월 2일(목)

유아부에서는 4월10일 (목) 부터 4주간 영,유아, 미취학 아동을 둔 엄마(타교회 신자, 불신자 가능)를 대상으로 새 세대 엄마들의 모임을 갖는다. 시간과 장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서울교회 702호, 703호이며 담당은 박금실 유아부 지도 교역자이다.

강의 내용은 4월 10일-오리엔테이션과 영유아기 발달사,

4월 17일 - 자기 관리와 개발은 어떻게?

4월 24일 - 기독교인의 행복 심리 찾기

5월 2일- 과천 어린이 대공원으로 소풍의 순서로 꾸며진다.

강의와는 별도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표를 참조하기 바라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또한 2월 중에 있었던 자모회에서 2003년도 자모회장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회장 - 한영(이태웅, 이태준의 모)

부회장 - 김홍경(박예빈의 모)

총무 - 문혜진(김수진의 모)

시간/날짜	4. 10	4. 17	4. 24	5. 2
10:30 ~ 10:50	밀가루 찹쌀 놀이	신문지 놀이	밀가루 찹쌀 놀이	소
10:50 ~ 11:10	누기누기 찾아나- 친양대회	동화읽기	인형극놀이	
11:10 ~ 11:20	손씻고 화장실 다녀오기			
11:20 ~ 11:40	간식시간			
11:40 ~ 12:10	문어 만들기	애벌레 만들기	달걀 장식 병이리 만들기	풍
12:10 ~ 12:20	손 유희 요3:16양송	음물 놀이	애벌레 처럼 움직이기	
12:20 ~ 12:30	귀가준비			
12:30 ~	귀가			

어린이 수요일예배에서 알립니다

1. 수요일어린이 예배에서 만들어지는 어린이들의 작품은 나중에 그림카드 등의 작품으로 제작, 전시될 예정이어서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2. 수요일어린이 예배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수요일어린이 예배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날로 증가하여 함께 봉사하실 남녀선생님들과 영어회화 등을 지도하실 수 있는 <특기>를 가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수요일어린이예배는 매주 수요일 603호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4:30 - 4:50: 교사 경건회
5:00 - 5:30: 어린이 예배
5:30 - 5:35: 어린이 성경회화
5:35 - 6:20: 미술교육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매월 셋째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성경통독을 마친 성도들을 시상하고 있는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3월 성경통독자를 시상하며 교회로고가 새겨진 머그 컵을 드립니다.

3월에 성경통독을 마친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독): 권영자 권사(8교구)
- (1독): 이수현 집사(1교구) 박현주 성도(8교구)
- 김용호 집사(12교구) 김혜란 집사(13교구)

70인 전도대는 이렇게 활동한다

이규정 목사(9, 10교구 · 70인전도대 지도)

우리 서울교회 70인 전도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복된 무리들이다. 대치동 시대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조직되어 지역정탐과 한티공원 노방전도를 주로 해오다가 작년 부터는 지하철 전도를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은마아파트 축호전도까지 그 폭을 넓혀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수요일전도대는 여전도회 주력으로, 토요일전도대는 남선교회 주력으로 전 교역자들이 모두 동원되어 한티공원앞과 은마상가를 중심으로 노방전도와, 지하철 대치역에서 사랑의 차를 대접하며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만나는 귀한 영혼중에 영접을 한 사람이나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신앙은 중보기도팀과 사랑의 편지 발송팀에게로 전달이 되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편지를 발송하며 교제하고 있다.

목요일 축호전도대는 적극적으로 은마아파트 각동을 담당지역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은마의 전 가구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전도하는 70인전도대의 최전위대이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재미있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외치며 올해 500명의 영혼을 축호전도팀의 손으로 등록시키기로 작정한 뜨거운 십자가의 군병들이다. 이들

은 매주 목요일 11시에 609호에 모여 순례자에 각자의 실명이 적힌 도장을 찍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 경비아저씨에게 드릴 선물, 심방자용 선물 등 무기를 장착한 후 뜨거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파송말씀을 듣고 사탄의 세력의 결박과 전도자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8층 만나홀에서 든든한 식사를 하고서 담대히 영적 전쟁 현장으로 진군한다.

축호전도대를 통해 기 등록된 성도들이 많이 생겼으며 매 주일 새로운 영혼들이 이들을 통해 등록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도대원들과 전도대로 봉사하기로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매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802호에서 전도학교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70인 전도대는 '사람에게는 지독한 전도를, 하나님께는 지극히 큰 상급을' 소원하면서 힘있게 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전도대팀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와 전도학교과정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사무국이나 70인전도대(대장: 김광신 장로)로 하면 된다.

금주의 성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1:7-9)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Joshua 1:7-9 [NIV])

이 사람!

백효죽 장로
(신앙감독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지난 2월 1일 할렐루야 찬양대 신임 지휘자로 임명된 백효죽 장로는 이순의 나이를 훌쩍 넘기었으나 젊은이 못지않은 패기와 열정을, 한편으론 황혼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이의 아름다운 사교를 소유

한 분이다.

서울교회의 음악 감독직이 처음 도입되었고 초대 감독으로 임명된 백효죽 장로님은 찬양대는 회중찬양을 리드하므로 예배인도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며, 성도들이 예배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자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는 12월에는 서울교회가 주관하는 메시아 연주가 있게 된다. 백 장로님은 3월 중에 자신이 재변역한 메시아가 곧 독일의 허가를 받아 출판 될 것이고 그러면 연합찬양대의 메시

아 연습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백 장로님은 부인 이영자 권사 사이에 명훈과 혜란을 두었다. 결혼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 사랑의 첫 열매로 얻은 명훈, 그런 명훈이는 출생 시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가 되었고 그 후 14세가 될 때까지 걷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다.

당시 종교 음악을 공부하려던 당초 유학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어린 명훈이를 매일 재활원에 데려가야 하고 아이로서는 감당키 힘든 대수술도 3번이나 해야 했다. 백 장로님 부부에게는 명훈이의 자립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어찌 보면 삶의 목표가 되었다. 사람인 이상 어찌 원망이 없을까하는 그보다는 명훈이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명훈을 통해 세상의 욕심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

명훈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백 장로님은 음악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대학원을 들어가 8년간을 공부

했다. 주위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했지만 그는 더 깊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고국으로 부르셨고, 교육계와 교계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

백효죽 장로는 그간 미국 전문합창단 연합기구(Chorus America)에서 유일하게 동양인 이사로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하였고, 지금은 서울시립합창단 단장과 상임 지휘자로 활동 중이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로 연세대학교에도 출강하고 있다.



허숙 (편집부)

새가족부 교육을 수료하며



장창식 성도(1교구)

어린 시절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한동안 친구와 함께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55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하며 한편으로 나만 올바르게 정직하게 산다면 신앙을 가진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자기 해석을 앞세우며 헛되이 살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일시적인 즐거움도 있었습니 다만 나의 삶은 늘 답답했고 갈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구원의 손길로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서울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직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 연약하나 흑사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교회에 나와 진정하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10주 동안 새가족부 교육을 받는 동안 흑사나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을까,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늘 애태우시며 많은 사랑과 기도로 이끌어주신 전도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사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반에서 함께 공부했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부에서의 10주는 내가 사는 동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제 믿음은 비록 연한 싹과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황무지와 같은 제 마음에 믿음의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은 때로는 맑은 호수와 같은 평안함으로, 때로는 엄한 꾸짖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새가족부의 인도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손님처럼 가끔씩 교회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제는 확실히 서울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저를 다시 불러주신 예수님, 이제 다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서울교회와 새가족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청소년들이여! 새학년, 이렇게 시작하자!

윤영국 목사(중등부 지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6)

새 학년이 되면 많은 기대감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소 부담은 되지만, 또 다른 기회이기도 마음 설렙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해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과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나 내 소원보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흘리는 한 방울의 땀과 눈물은 내일을 향한다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의 땀과 눈물을 투자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면 하루를 승리하고, 주일을 깨우면 일주일 을 승리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진정한 우정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또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의 복된 만남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스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스승, 신앙의 스승, 학문의 스승의 만남도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주 항아리의 크기와 외형에 너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 술을 담을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 술이 담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다른 자녀들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는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자녀와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부모가 되십시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지도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걱정과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자유롭게 됩니다.

새 학년을 시작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분명한 길이 보입니다.

춘계 일제 심방 시작되다

이용식 목사(5,6교구 · 교구위원회지도)

춘계 일제심방이 3월 17일부터 교구별로 시작합니다. 일제심방은 하나님의 종들이 각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아주 중요한 심방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심방을 받기위하여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는 가정의 기도제목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교구목사님에게 메모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가정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것은 심방자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냉수 한 잔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심방 받는 가정은 목사님 맞은편에 앉고, 다락방장은 오른쪽에 앉습니다. 심방대원들은 너무 떠들

지 않고 말의 주도권을 목사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는 심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량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주보에 간지로 동봉하였던 주차 차량 등록표를 작성하셔서 현금양이나 시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이 가까운 성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안티공원 앞 대로변 주차시 버스정류장 앞, 뒤5m는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한국교회개신연구원과 미국이민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주최하여 열린 청교도 신앙 세미나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교회에서 열려 은혜 중에 마쳤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자"를 주제로 열렸던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서 목회 하는 교역자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의 강사 11명이 주제별로 강의를 맡아 진행되었다.

이종운 목사님은 이들을 환영하는 환영사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다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다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피선교국인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2위권의 선교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

고 계신지 알 수 있는 역사적 흔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넘쳐흘러 들어오는 이때 신앙과 행위의 일치성을 강조한 청교도 신앙은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보화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둘째 날과 셋째 날 오후에 오전 강의를 마치고 월드컵 주경기장과 순교자 기념관, 대한성서공회 등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특히 작년 여름 고국의 숨결을 함께 느꼈던 월드컵 주경기장을 보면서 감격에 젖기도 하였다.

이번 참석자 가운데 미 동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장로교회에서 시무하시는 명돈의 목사님은 이번 세미나는 이름 그대로 100년에 한 번 가지는 모임으로서 미국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답게 강의 내용과 강사진의 짜임이 알차고 깊이가 있어서 언제 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세미나가 끝나는 것을 모두가 아쉬워하며 모든 참석자들이 이번 청교도 세미나 참석의 의미를 높게 두고 주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시간 차질 없는 진행과 매일 식사를 맡아 수고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아낌없



는 박수를 보냈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12일 도착한 당일 저녁부터 강의에 들어가 이튿날 새벽 기도부터 온종일 땀 흘린 일정이었으나 모두가 피곤한 기색 없이 자신의 목회와 신앙에 대한 재충전의 시간을 만끽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교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청교도들을 본받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건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분명 귀한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청교도 목회, 청교도 윤리, 청교도 신학 등 열 번의 강의가 있었던 청교도 세미나는 15일 이종운 목사님이 참석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풀고, 명돈의 목사님의 인도로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일정을 끝냈다.

마침 온 세계에 전운이 감돌고 한·미 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는 이때 열린 청교도 세미나는 복음을 위해,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있는 일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단기선교를 준비하며

나소정 (청년부)



김보디아에서 Brow 종족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정룡 선교사를 모시고 14일(금)에 가진 1차 기도회

이라크 전쟁에 관한 정세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 나는 캄보디아를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영화 <킬링필드>로 기억하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나라, 전국민의 대부분이 노인과 아이들이

며, 그들의 대부분이 과부와 고아라는 나라,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흔히 제3세계로 불리우는 동남아시아 중의 하나로 한때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이후의 근현대사를 돌아보아도 전쟁과 내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캄보디아는 세계의 변방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도 역시 이방의 작은 나라이다. 전통적으로는 불교를, 그 중에서도 귀신과 정령 숭배가 온 나라에 만연하며, 요즘은 원불교와 이슬람이 창궐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97년이라고 한다. 불과 십년도 채 지나지 않은 셈이다.

단기선교를 앞두고 먼저 가슴이 아픈 것은, 전쟁으로 시달린 오랜 역사와 그들의 가난, 청년이 부채하는 무력한 사회상,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그네들의 삶에 대한 나의 무지와 무관심이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 현실에 먼 타국의 소외된 민족은 내게 너무 먼 이야기였다.

그러나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불어넣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너무 감사하다. 가난한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 더욱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며, 그 심령의 갈급함으로 인해 더욱 뜨겁게 열릴 것임을 확신하기에 더욱 감사하다.

실례고 기다려지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과 전할 능력은 미약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뜻과 그 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욱 강건하여질 단기선교팀의 모습과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낯선 타국의 형제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과 우리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실 하나님이다.

남은 준비기간동안 영육간에 든든한 무장과 훈련을 거듭하고, 지혜로운 만반의 준비가 가능하도록 부족한 내 모습부터 같고 닦을 계획이다. 복음을 전하려 가라는 지상명령은 전하는 자와 전해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만나다

양손의 1지를 간격을 두고 마주 바라보게 세운 후 중앙으로 모아 주먹 전부분을 마주 댄다.

(자문: 임규현 에바다부 담당 목사)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7일(월)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 공청회를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갖는다. 18일(화) 신임 군복 수련회에서 설교와 특강을 한다.
- 개업 : 윤상남 집사, 이영희 집사(3교구) 서울오토 서초구 양재동 96-8 3463-0399
- 금주의 식사 : 오정수 장로 · 이영희 권사 가정 - 청교도 신앙세미나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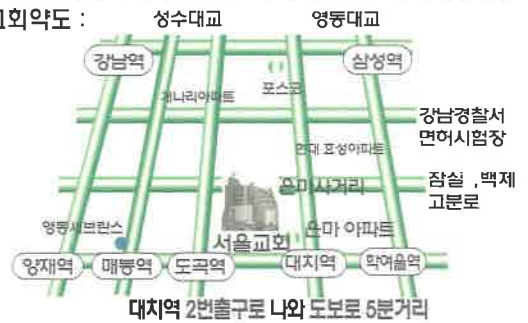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북한의 핵 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